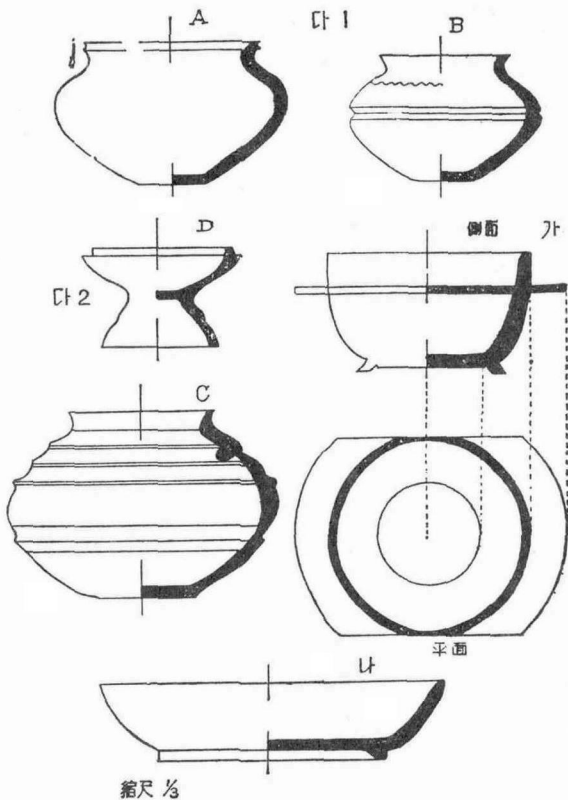


四天王像甓罍의 一例

秦弘燮



四天王像罍은 過去에 數個 發見되었으니 모두 四天王寺址에서 發見된 것들이며 그 中에는 鮮명한 綠釉가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不幸히 모두 下半部만으로 上半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慶州博物館에는 一九二三年 日人 骨董商으로부터 購入한 四天王像罍 二個分 八片이 있는데 完形은 이를 수 없으나 그 中 一個分은 매우 貴重한 例로 四天王像의 顔面을 包含한 右上半部를 볼 수 있다. 罍의 原形은 縱約八十cm, 橫約七十cm, 厚八cm로 過去에 發見된 四天王像 罍과 同一한 크기다. 下半部는 惡鬼의 손이 남을뿐 四天王像의 顔面 下半以下가 全失되었다.

像 周圍에는 豪華한 裝飾이 있는 輪廓을 들리되 下部가 直線인 것은

이미 알려진事實이지만 上部는 半圓을 그리고 있다. 上部兩隅에 생기는 間地에는 勁麗한 飛雲文이 있고 輪廓上部 中央에 도 寶相華文같은 것이 陽刻되었다. 此外에 남아 있는 天衣자락은 다른 罍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罍에서 特히 興味를 끄는 것은 顔面이다. 머리에는 甲兜를 썼으며 그 頂上에는 花形이 附혀있다. 두 눈은 크게 부릅떴고 兩眉의 表現亦 怒形을 이루었다. 顔面兩側에는 鳥翼形이 있는데 아마도 顔面을 保護하는 甲冑의 一端인가 한다.

顔面뿐 아니라 全體의 彫法이 매우 雄勁하며 新羅統初의 鬼面瓦에서 보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特히 感恩寺址 西三層石塔에서 發見된 舍利藏 置中の 四天王像 頭部와 類似한은 더욱 興味있는 일이다. 이 罍의 發見 經緯에 對하여는 알려진 바 없으나 出土地가 慶州市 排盤里로 記錄된 것을 보면 아마도 四天王寺址에서 發見된 것인 듯하다. 齋藤忠著「朝鮮古代文化의 研究」에 이 罍의 圖版을 掲載하였으나 本文에서는 이에 對하여 言及하지 않았다.

考古美術 卍

◎ 李朝佛畫의 新例(觀音三十二應驗)

日本東京 大丸百貨店에서 去二月十日부터 十五日까지 開催된「智恩院秘寶特別展」에서「中國明代畫」라고 標記된 佛畫 一幅이 同人 黃壽永氏에 의하여 李朝王室

